달라이라마 성추행 논란…“오랜 풍습” 반박도

2월 28일, 다람살라 행사 촬영 유포
소년에 “내 혀 빨아보라” 장면 논란
티베트 전문가 “문화 몰이해일 뿐”
달라이라마, 사과 메시지 발표하기도

박영빈 객원기자


논란이 된 소년과 달라이라마가 만나는 장면. 사진출처=VOA 방송화면 캡쳐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유튜브 등의 SNS를 통해 달라이라마가 소년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유포되면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달라이라마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는 티베트 문화에 대한 몰이해에 따른 오해라는 전공자들의 반박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진정 되고 있으며, 달라이라마 측은 소년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일련의 논란에 대해 ‘BBC’ 등의 해외 외신들은 특별보도를 이어나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 2월 28일 인도의 다람살라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촬영된 것이다. 당시 달라이라마는 인도의 부동산 회사인 M3M그룹 산하의 자선재단이 운영하는 기술학교의 졸업생들을 만나는 행사에 참석했다. 문제의 장면은 달라이라마가 행사에 참석한 소년을 안고 볼과 입을 맞추고서 혀를 내밀어 “내 혀를 빨아보라”라고 말한 장면이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서구권을 중심으로 달라이라마 소년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지도 모를 소년과 소년의 가족, 그리고 세계의 형제자매들에게 사죄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티베트 불교나 문화를 연구하는 전공자들을 비롯해, 티베트 문화권의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가 사과할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티베트 문화나 언어를 모르는 서구의 눈으로만 보았기에 생긴 논란”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과 로버트 마이어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람들은 달라이라마가 소년에게 ‘내 혀를 빨라’ 혹은 ‘내 혀를 먹으라’라고 말한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것은 티베트 문화권에서는 노인세대가 어린아이들을 놀리는 일상적이고 친근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며 “달라이라마가 사과할 만한 일도, 잘못한 것도 없다”고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여기에 더해 많은 티베트 전공자들은 “티베트의 오래된 풍습에 타인에게 악의가 없음을 보이는 행동 중 하나로 혀를 내밀어 보이는 인사법이 있으며, 달라이라마 나이대의 노인들에겐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의 영상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반박이 이어지면서 전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인도인 소년이 먼저 달라이라마에게 “달라이라마를 안아봐도 되는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달라이라마가 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오히려 소년이 달라이라마의 품에 파고들려는 것을 달라이라마가 가볍게 밀어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행사가 끝난 직후 소년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달라이라마와의 만남은 너무나 멋진 경험이다. 긍정적인 힘을 많이 받았다”며 기뻐했고, 소년의 어머니 역시 “오랫동안 달라이라마를 뵙길 원했고, 이렇게 축복을 받은 기쁨을 뭐라 표현 할 수 가 없다”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였다.

티베트인들 역시 서구권의 거센 비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티베트의 유명작가 체링외셀은 “달라이라마는 인도에서나 외국에서나 천진하게 혀를 쑥 내밀어 사람들을 곧잘 웃기게 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입을 맞춰주는 것도 오랫동안 달라이라마가 아이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해오던 방법이다. 이 노스님의 위신에 흠을 잡기 위해 노력한 중국 공산당도 잡지 못한 흠을 냉철한 서양인들이 잡아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청년 홍법대사상’ 최초 공개에 순례자 줄이어

日 슛샤카지, 불상 3점 공개
홍법대사 탄생 1250주년 기념


주지스님도 친견한 적 없던 불상들이 최초로 대중들에게 공개 됐다. 사진출처=시코쿠 신문

홍법대사 쿠카이의 탄생 1250주년을 기념해 가가와현 젠츠지시에 있는 슛샤카지(出釋迦寺)에서 지금껏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불상들의 대중공개가 결정됐다. 주지스님조차 첫 친견이라는 불상들의 이야기를 ‘산요방송’, ‘시코쿠 신문’ 등의 현지 언론들이 특별 보도했다.

홍법대사 쿠카이가 불도에 입문할 것을 결정하고 자신의 서원을 세웠다고 알려진 가하이시야마(我拝師山). 해발 481m의 낮은 산으로 그 기슭에 시코쿠 88개소 순례길 중 73번 사찰인 슛샤카지가 있다. 사찰의 연기설화에 따르면 홍법대사가 어릴 적 불도에 뜻을 두고 산 정상의 바위에서 서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몸을 던졌고, 천녀와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 구해주며 수기를 내린 성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불상들은 홍법대사가 몸을 던졌다고 하는 산 정상에 있는 암자에 봉안돼 있던 불상들이다. 본존인 석가여래상, 부동명왕상, 홍법대사상 등 3구가 산 정상에서 기슭의 슛샤카지로 이운돼 공개됐다. 특히 본존불인 석가여래상은 주지스님조차 단 한 번도 친견한 적이 없는 비불(祕佛)이다. 슛샤카지의 주지 오카다 유키에 스님은 “오랫동안 암자 본당의 감실 안에 봉안돼있었다. 나는 물론이고, 선대에서도 감실을 열었다는 기록이 없다”고 전했다.

가장 주목을 끄는 본존 석가여래상은 높이 약 70cm의 목조에 개금이 돼 있으며 통견의를 입고 있는 좌상이다. 감실의 형태 산내 암자의 중창 시기에서 대략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의 작품으로 추정하는 입장도 있으나, 후대에 개금됐을 가능성과 함께 공개된 부동명왕상이 9세기경의 작품인 것에서 동시대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껏 한 번도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 진적 없기에 상세한 내력은 아직까지 불명이다.

흥법대사상의 경우 불상의 좌대에 남은 묵서에서 사찰이 산 정상에서 기슭으로 옮겨져 새롭게 중건된 것에 맞춰 조성됐다는 기록이 있어 16세기 후반의 작품이 명확해 사찰의 역사를 밝히는 자료로써도 중요하다. 보통 중장년의 모습으로 조성되는 흥법대사상들과는 달리 젊은 모습의 흥법대사상 역시 본존불과 함께 주목받고 있다.

슛샤카지 측은 5월 말까지 불상들을 공개하고, 이후 가을에 한 차례 더 공개한 후에 다음 공개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공개소식이 전해지면서 순례자들은 물론 현지주민들 역시 불상을 친견하기 위해 몰리고 있다고 현지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공개는 사찰의 창건주이자 88개소 순례길의 시조인 홍법대사의 탄생 125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오카다 스님은 “이번 공개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교문화와 사찰에 대한 흥미를 가지시길 바란다”며 공개의 의의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군정, ‘띤잔’ 맞아 3천 명 사면

불교 달력 사용 4월 신년 축제
“국민에 기쁨 주기 위한 사면”


사진출처=eurasiareview

미얀마 군사 정권이 신년 축제인 ‘띤잔’을 맞아 3000여 재소자를 사면했다.

4월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군정은 “외국인 98명을 포함해 3천 113명을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는 불교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4월 새해를 맞는다. 미얀마 사람들은 띤잔 기간 보시를 하거나 물을 뿌려 액운을 쫓는다는 의미의 ‘물 축제’를 즐긴다.

군정은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새해를 기념하고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면 대상에 반정부 시위대 등 정치범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정은 지난해 띤잔에도 1천 600여명의 재소자를 석방했으나 정치범은 제외한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2020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정권을 빼앗았다. 이후 군정은 NLD 측과 민주화 운동가 등 반대 진영 인사들을 모조리 구금했다. 수치 고문은 선거 조작 및 부패 등 각종 혐의로 총 33년 형을 받았다.

민간에 대한 탄압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정부군이 사가잉 지역의 깐발루 타운십 (구)빠지지 마을의 NUG 사무소 개소식장을 공습해 민간인을 포함해 약 17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군정은 쿠데타 이후 2년 간 2만1천348명을 체포했고, 1만7천460명을 구금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세계 불교 지도자들, 현대 사회 해법 모색

인도, 4월 20~21일 제1회 세계불교정상회의 개최



세계 불교 지도자들이 인도에 모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힌두스탄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월 20~21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 사진) 인도 총리는 국제불교연맹(IBC)과 함께 인도 뉴델리에서 제1회 세계불교정상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2020년 첫 회의가 무산된 지 3년 만이다.

캄보디아, 일본, 러시아, 한국, 태국, 베트남 등 약 30개국에서 온 170여 불교 지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철학에서 응용까지 현대 위기에 대한 응답’을 주제로 열렸다.

기조 연설자로는 티베트 불교 겔룩파의 승려이자 콜롬비아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트루만(Robert Thurman)이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현대 사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환경 위기와 지속가능성 △나란다 불교 전통 보존 △인도 불교 문화 유산의 보존과 연구 등을 주제로 각국 불교 지도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이후 불교 지도자들은 인도 내 여러 불교 유적지를 방문했다.

키샨 레디 인도 문화부 장관은 “여러 나라의 저명한 불교 승려와 학자, 대사와 외교관들이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며 “우리 불교 역사와 유산을 더 넓은 세계에 알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비전을 갖고 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는 지난달에도 상하이협력기구의 후원을 받아 불교 지도자 모임을 주최한 바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후 인도가 전 세계 불교 교류를 위한 글로벌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현 객원기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고려대 불자교우회

회 장 홍승기

교우회 동문 일동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2000호
고려대 불자교우회 0502-129-2000

